

# 공공건축기획 절차 의무화...승용차 앞번호 '3자리'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국토교통부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이용대상자 확대(1·2급 → 중증장애인)
- 법정운행대수 상향 조정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 → 150명당 1대)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① 전국 11개 주요도시에서 시범사업 추진
  - ② 후불교통카드 도입 및 전국 호환 등 편의성 개선
  - ③ 광역버스 이용 시 교통비 절감 효과 향상
- 주요공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 청주공항: 국내터미널 증축(189→289명/년)
  - 제주공항: 국내터미널 증축(138→4,872명)
  - 김해공항: 주차발딩 신축(5,450→6,650명)
-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 여객운수권 주 139회를 국적항공사에 배분(31개 노선)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항공합성 체계성 개선될 수 없었던 인천-장지제 등 9개 노선 신규 개설 등
    - \* 인천-베이징(다싱공항), 인천-장지제, 인천-난퉁, 인천-닝보, 청주-장지제, 무안-장지제, 대구-장지제, 무안-엔지, 대구-엔지
  - 출퇴근 편의 위한 정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 공천구청역근교 대피선 19년 하반기 준공 예정
  - 급행화 사업 완료 시 급행전철 운행횟수를 일 20회 확대 (34회→54회)할 계획, 운행 간격 50분→30분으로 단축

##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부터 공공건축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금융대출'의 심사에 자산 기준이 신설되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전 임지선정, 디자인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우선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

## 주택도시자금 대출절차 간소화...중국 항공편 대폭 확대

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등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대출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된다.

또 지금까지 주택도시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 X-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3일부터 시작했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ITX-세마를,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쾌속 교통망·영산강 명품 조망권 확보

###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

광주를 대표하는 경관건설사 진아건설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663번지 일원에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 (사진)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3층 7개 동 558세대(전용면적 84㎡ 472세대, 109㎡ 42세대, 115㎡ 44세대)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이며, 채광·통풍·환기 등에 탁월한 4베이 특화 설계됐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와 희소성이 있는 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명품 중·대형 단지다.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지상 주차장을 최소화한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 단지다. 무엇보다 광주의 중심 상무·수원지구와 가깝다. 단지 인근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우산동 매일시장, 이마트 광산점, 성심병원, 빛고를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무진로, 임방울대로, 사암로, 상무교차로, 제2순환로 등 광주 전 지역을 관통하는 쾌속 교통망과 KTX·SRT 광주승강역,

유스퀘어 등 광주의 주요 인프라를 자랑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이 장점이다. 단지 앞에 월곡초가 있어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도로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월곡중, 광산중, 광주여대, 호남대 등도 인접해 통학 환경이 우수하다.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산강이 흐르는 명품 리버뷰 조망권이 강점이다. 영산강 조망은 물론 일부 세대에서 무등산까지 더할 조망권을 확보했다. 입주자를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KT 기가지니가 기본 제공돼 스마트한 홈 IoT(사물인터넷)를 누릴 수 있으며, 전 세대에 고급 현관 중문을 설치해준다. 또 미세먼지를 99.5% 이상 걸러주는 HEPA필터를 무상으로 시공한다. 한편,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는 주택 전시간 개관일을 기념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주택전시관은 서구 상무대로 943번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62-223-0002. /박정욱 기자 jwpark@

## 광주 중심 입지 프리미엄 누리다

### '광천 성암 어반센트럴'

광주의 중심 광천동에 '광천 성암 어반센트럴' (사진)이 29일 일반에 선보인다. 광주의 노른자위 땅이라고도 불리는 '광천 성암 어반센트럴'의 입지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등에 업고 개발호재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교통·생활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춘 곳이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유스퀘어·CGV·병의원 등이 몰려있는 메디컬 스트리트 등 각종 편의와 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중심 생활권이다. 교통 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농성역 및 화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무진대로·대남대로·죽봉대로·동림IC·서광주IC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서초·광천초·서석중·서석고·광덕중·광덕고·광주여고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호반써밋플레이스·화정 아이파크 등 신규 단지가 입주 예정이며, 대규모 광천동

주택개발 공급도 계획돼 있다. '광천 성암 어반센트럴'은 전체 공급세대 78%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옥상정원·아외테라스(4층)·코인세탁실(4층)·피트니스센터 등의 특화설계도 선보인다. 여기에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빌트인 세탁기·전기 인덕션·비데 등 빌트인 무상 풀옵션 시스템과 홈 IOT 시스템을 통해 조명·가스·난방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다. 광천 성암 어반센트럴 관계자는 "4년 연속 기업신용평가등급 A+에 빛나는 든든한 성암토건이 시공을 맡았다"며 "교통·교육·생활·자연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고 입지를 통해 편안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천 성암 어반센트럴'은 홍보관 개관일을 기념해 오픈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보관은 광주시 서구 마북동 165-14번지에 마련됐다. 문의 062-372-510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힐스테이트 화순 2단지' 조합원 모집

화순 최초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화순 교리'에 이어 화순읍 삼천리 611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화순(삼천리) 2단지' (사진)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힐스테이트 화순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39층 3개 동 아파트 396세대와 오피스텔 34세대로 구성돼 있다. 화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시공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기준 ▲84㎡ 326세대 ▲113㎡ 35세대 ▲114㎡ 35세대와 오피스텔 34세대 등이다. 광주·전남권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로 성공적인 신화를 이룩하고 있는 ㈜지오산업 개발이 업무대행을 맡았으며, 시공 예정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화순은 광주시와 가깝다. 그러다보니 광주에서 이주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지난 3년 간 화순 전입 인구는 1만9414명이다. 이중 47%(9125명)가 광주 거주자였다. 화순으로 이사 온 사람 가운데 10명 중 5명이 광주사람이란 얘기가.

또 화순에는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에 기대도 높다. '힐스테이트 화순 2단지'는 화순읍 삼천리 611번지 일원에 지어진다.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반경 1km 이내에 군청은 물론 버스터미널, 우체국,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도 아파트 인근에 위치했다. 아파트는 최고 39층 높이로 예정돼 있으며 평면은 4베이 구조(일부 세대)다.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로 설계했다. 화순은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광주·전남 거주 기간 6개월·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4㎡ 1개 이하 소유한 세대주이다. 힐스테이트 화순 2단지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96% 이상 완료됐다. 견본주택은 화순군 화순읍 교리 21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 문의, 1899-6220.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